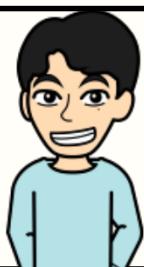


경린이를 위한 경매 용어 사전

심플한

부동산 경매

용어 모음.zip



방방테크, 조마더



경매 용어집 구성



CHAPTER
01

입문 단계

: 경매의 기초를 이해하는 단계

CHAPTER
02

권리분석 단계

: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단계

CHAPTER
03

입찰 단계

: 경매 참여 및 입찰 단계

CHAPTER
04

명도 단계

: 낙찰 후 명도 및 후속 절차

1. 입문 단계



① ★ 경매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

=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갚는 사람의 자산을 팔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① ★ 공매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

= 국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산을 국가가 강제로 판매하는 절차.

① ★ 낙찰

경매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매각이 결정되는 것.

= 경매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라고 합니다

① ★ 유찰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 경매 사건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유찰되고 법원은 20~30% 가격을 낮춘뒤 한달간 경매사건을 공고후 경매를 재진행합니다.

① ★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돈 빌려준 사람.
대개 은행이 채권자가 되지만 개인, 국가, 법인, 임차인도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①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돈 빌린 사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

1. 입문 단계



법원경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절차.

재매각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 낙찰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책정한 금액.

=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치(금액)를 평가합니다.
이런 **감정평가금액**은
경매의 최초 입찰 가격이 됩니다.

최저매각가격

법원이 설정한
회차별 경매 시작 가격.

= **법원이 정한**
입찰 최저 하한선 가격.
입찰자는 최소
이 금액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경매 정지

경매 진행중 채권자 및
권리의 변동사항이 생겨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잠시 경매를 중단하는 것

경매 변경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중
법원이 직접 변경하거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경매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것

2. 권리분석 단계



①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얼마만큼의 대출 받았는지 등 각종 중요한 권리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전세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설정해 놓은 권리

③ 소유권 청구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을 미리 예약하기 위해 하는 등기.

=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임시 등기.

④ 근저당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권.

= 등기부등본에 보통 은행이 설정하는 권리로써 "돈을 빌려주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잡았음"을 표기한 등기.

⑤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묶어 두는 절차.

=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절차.

⑥ 법정지상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토지주인 = 건물주인 이었다가 경매를 통해서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

2. 권리분석 단계



①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전입을 빼고 이사를 가게 될 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할 수 있겠지만,
임차권을 설정해놓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②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ex. 보증금, 전세금)를
주장할 수 있는 힘.

=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③ 우선변제권 ★★★★

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의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형성되어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④ 배당요구종기일 ★★★★★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법원이 부여하는
배당 요구 신청 마감일.

=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낙찰대금에서
돈을 돌려받을수가 있는데,
이러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날을 의미

⑤ 말소기준권리 ★★★★★

경매사건에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올 때,
어떤 권리들이 사라지고 어떤 권리들은 인수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권리

= 이러한 말소기준 권리에는 총 다섯 가지[(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기
입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 경매신청)전세권]가 있는데,
이 권리들은 돈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등기부등본상 이 권리들보다
늦은 권리는 경매 건의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올 때,
다 소멸하고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옵니다

3. 입찰 단계



입찰

경매에 참여하여 원하는 가격을 써내는 일

=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은 경매절차에 따라 입찰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입찰 참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금액 (최저매각가격의 10%).

= 경매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매물건의 최저매각 가격의 1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표는 한 장으로!)

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방문해 입찰하는 방식.

기간입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이 가능한 방식.

현장조사

경매 참여 전에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기일입찰표

경매 입찰 참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 입찰기일표에는 경매입찰자의 인적사항과 경매사건정보, 경매입찰가격 등 을 기록하게 됩니다.

3. 입찰 단계



① 개찰

입찰 마감 후
법원이 제출된 입찰서를
공개하는 절차.

= 입찰표 제출 시간이 마감되면
입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입찰서를 공개하는
개찰을 진행합니다.

② 낙찰자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

③ 대금납부기한

낙찰자가 법원에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

④ 공동입찰

하나의 경매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

= 공동이 입찰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소유권은 각각 1/2이 된다.

⑤ 차순위매수신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절차.

= 경매 절차에서 1등 낙찰자를 호명하면
즉시 차순위매수 신고를 할건지 입찰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수 있는 자는 “1등 낙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가격”보다 “높게 입찰가격을 제출한 입찰자”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 명도 단계



명도

낙찰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거주자를
내보내는 일

점유자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

인도명령

경매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경매 관할 법원에
그 집을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명도소송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안나갈 때
진행하는 소송.

=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했음
에도 점유자가 자진하여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강제집행

경매에서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로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

집행관

경매 진행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명도 단계



명도확인서

점유자(살고 있는 사람)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비용을 받기 전까지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임의경매

근저당권, 전세권등과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

강제경매

법원 판결, 공정증서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

=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고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이 경매 진행에 제출된 서류들을 토대로 직접 정리하고 발부한 문서

이 문서로 **권리분석상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입찰날짜 7일전 게시됨

배당

경매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나누어 주는 절차.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배당요구종기일전**에 해야 함

5. 김과장의 도전 사례로 단어 이해하기



경매 초보 김과장의 첫 도전! (입문편)

김과장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지만, **경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지인이 "요즘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원 경매에 좋은 물건이 많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어느 날, 경매 사이트를 보던 김과장은 **감정평가액**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최저매각가격** 3억 원으로 경매에 나온 것을 발견했어요. "어?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나왔네?" 하고 궁금해진 김과장은 경매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 아파트는 원래 **채무자**(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했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은행(=**채권자**)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었어요.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요청했고,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거였죠.

김과장은 **입찰**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경매 당일,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어버렸어요! 법원은 한 번 유찰된 물건의 가격을 20~30% 낮춰서 다시 경매를 진행해요.

"오, 한 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겠네!" 김과장은 전략적으로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경매가 예정된 날짜 전에 **경매 변경** 공지가 뜬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니,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해서 경매 일정을 조정한 것이었어요. 경매 일정이 바뀌면서 김과장은 다시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했어요.

결국, 두 번째 경매에서 김과장은 2억 8천만 원을 써내고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6. 김과장의 도전 사례로 단어 이해하기



경매 초보 김과장의 첫 도전! (권리분석편)

김과장은 지난번 첫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까지 받았어요.

경매에 흥미가 생긴 김과장은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김과장은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 **소유자**: 김과장이 낙찰받기 전 채무자(이전 집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 **근저당권**: 은행이 설정한 1억 원짜리 근저당이 있었어요.

✓ **전세권**: 세입자가 5,000만 원의 전세금으로 거주 중이었어요.

✓ **가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한 채권자가 미리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김과장은 혼란스러웠어요.

2. 근저당과 전세권, 해결해야 할 돈이 있을까?

김과장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낙찰자가 이걸 인수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다행히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은 소멸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은행이 **배당**을 우선적으로 가져간다는 점도 이해했죠.

그다음, 세입자의 권리를 살펴봤어요. 만약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상태면, 김과장이 전세금을 떠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한 상태였고, 전세보증금도 배당으로 해결될 예정이었어요!



3. 김과장의 최종 확인 :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요구종기일

김과장은 이제 **말소기준권리**를 찾았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은행의 근저당권(1억 원)*이 말소기준권리였고, 이것보다 후순위인 가압류, 전세권등은 모두 소멸되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한 임차인의 경우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낙찰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부 배당받아야지만

낙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떠안지 않고,

그렇지 못했을 때 낙찰자가 책임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배웠죠.

김과장은 "이제야 감이 잡히네!"라고 생각하며

경매의 권리분석이 왜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어요.

"이제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권리분석이 경매입찰에 첫걸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음 경매를 더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7. 김과장의 도전 사례로 단어 이해하기



경매 초보 김과장의 첫 도전! (입찰 단계편)

김과장은 권리분석까지 마친 후 드디어 자신 있게 경매에 입찰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입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했어요.

"그냥 가서 가격만 쓰면 되는 건가?"

1. 입찰 전 필수 준비: 현장조사 & 입찰보증금

김과장은 먼저 **현장조사**를 하러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했어요.

건물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비교했죠.

"오, 이 정도면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김과장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을 준비했어요. 이 보증금은 낙찰되면

매각 대금에 포함되고, 낙찰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죠

2. 기일입찰 vs 기간입찰, 어떤 걸 선택할까?

김과장은 입찰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 **기일입찰**: 정해진 날짜에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방식

✓ **기간입찰**: 일정 기간 동안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김과장은 법원에서 **기일입찰**로 진행된다는 걸 확인하고, 입찰 당일 법원으로 향했어요.

3. 입찰서 작성 & 제출 (기일입찰표)

김과장은 법원에서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했어요.

입찰표에는?

- ✓ 입찰자의 이름 & 연락처
- ✓ 경매 사건번호
- ✓ 입찰 가격 & 입찰 보증금액

김과장은 주변 시세와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2억 7천만 원"을 적었어요. 이 가격은 적당한 수준이었고, 경쟁자가 많다면 더 높은 금액을 쓸 수도 있었어요.

4. 개찰 & 낙찰 결과 발표!

입찰 시간이 마감되자, 법원에서 입찰표를 공개하는 **개찰**이 시작되었어요. 여러 사람이 써낸 입찰가격이 공개되었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었어요.

김과장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과는?

김과장, 낙찰 성공!

다른 경쟁자들이 많았지만, 김과장의 2억 7천만 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어요!

5. 대금 납부 & 차순위매수신고

하지만 경매는 낙찰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대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했어요. 김과장은 신속하게 대금을 마련해 기한 내에 납부했고, 재매각 위험 없이 안전하게 매각이 확정되었어요.

만약 김과장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대신 낙찰받을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이런 실수 없이 잘 진행 했구나!" 김과장은 스스로 뿌듯했어요.

김과장이 배운 교훈

"경매는 그냥 가서 가격만 적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과장은 현장조사부터 입찰 전략까지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과 명도 절차만 남았어요!

8. 김과장의 도전 사례로 단어 이해하기



김과장의 명도 도전! (명도 단계 사례)

김과장은 드디어 낙찰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어요!

이제 자신이 정식 집주인이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지?
런데 아직 **점유자**가 살고 있잖아…?"



1. 명도의 시작! 먼저 대화부터 해보자

김과장은 **명도**란 점유자가 집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작정 가서 나가라고 할 순 없었어요.

점유자는 누구일까?

- ✓ 전 주인이 계속 살고 있을 수도 있고
- ✓ 세입자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 ✓ 또는 불법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죠.

김과장은 먼저 정중하게 세입자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다행히 세입자는 배당을 받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좋아, 이 정도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어!"



2.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명령 신청!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김과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인도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인도명령이란?

-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 법원이 점유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는 것

김과장은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했고, 법원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세입자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어요.

3. 최후의 수단,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김과장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명도소송이란?

-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 진행하는 소송
-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음

소송 끝에 김과장이 승소했고, 법원은 강제집행을 허가했어요. 이제 집행관과 함께 명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집행관이 강제집행 날짜를 통보하자, 점유자는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드디어 김과장은 자신의 아파트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과장이 배운 교훈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구나…!"

명도까지 완료해야 진짜 내 것이 된다!"

김과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 명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점유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어요.



이 전자책이
경매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어를 이해하면 경매 절차가
훨씬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경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기초부터!

방방테크, 조마더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쉽게 경매를 접할수 있습니다 😊